[22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잦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,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, 모두 다 서로를 훼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,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부리거나, 제깜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.

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
주춧기둥 같은 ㉠둥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.

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, 칠흑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살에까지 미쳐,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,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댓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.

아,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.

-고재종, 「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」-

(나)

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.
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.
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
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
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[A]
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.
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
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
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
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[B]
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
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
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.
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.
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
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[C]
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.
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
㉡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.

-정호승, 「슬픔이 기쁨에게」-

(다)

〔**앞부분의 줄거리**〕 '나'는 바슐라르*가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갖는데 사용했던 '존재의 테이블'의 의의를 소개한다. '나'는 그 시간이 바슐라르에게 충일한 행복을 안겼을 거라 생각한다.

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슐라르를 흉내 내려는 치기에서가 아니다.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 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.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. ⓐ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, 둥근 판 위에는 작은 꽃문양을 새겨 넣은 테이블이었다.

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.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 갔다.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.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! ⓑ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.

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,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. ⓒ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.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기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에서였을 것이다.

ⓓ이런 씁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에는 깃들어 있다. 그런데 문제는 '존재의 테이블'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 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.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.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,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. 새겨진 꽃문양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 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니 생각할 때도 많았다.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는 한다.

(중략)

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.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. ⓔ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거울.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일러주는 거울.

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. 볕이 잘 드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손을 씻고.……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. 그 드문 순간들에야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된다.

-나희덕, 「존재의 테이블」-

*바슐라르: 시골 우체국 임시 직원 출신으로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딸을 혼자서 키우며 고된 삶을 살았으나, 독학으로 교수 시험에 합격한 세계적인 철학자.

22. (가)~(다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.
② 사물을 관찰하거나 세태를 관망함으로써,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.
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.
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.
⑤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
23. 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(가)는 겨울 감나무를 통하여 생명과 관련된 이치를 얻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. 특히, 감나무의 가지와 다른 가지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조화의 중요성을, 감나무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어떠한 존재들도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. 이를 통해,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배려하며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여,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.

① '가지'들이 모두 다른 '가지'들에게 훼방놓는 법이 없이 흔들리는 것은, '조화'의 가치를 드러내며, 자신의 분수에 맞게 세상의 순리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내는군.
② '찰랑한 허공'은 감나무 가지들이 다른 가지들과 서로 공존하며 '제 깜냥껏 한세상'을 흔들거리는 공간으로, 이를 통해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.
③ 실가지에 앉은 '새'는, 자신의 무게를 통하여 감나무 가지가 실뿌리까지 연결돼 있음을 드러내며, 이를 통하여 감나무 가지가 겨울을 이겨낼 힘을 주는 존재임을 나타내는군.
④ '칠흑 땅속'과 '땅심'은 '무게를 견딜힘'을 '우듬지'에까지 올려보내며, 이를 통하여 감나무 가지가 어떤 위기에도 꺾이지 않을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군.
⑤ 인간이 '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'다는 것은,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고,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지 않았단 것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는군.

24. (나)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[A]에서는 '슬픔'과 기쁨의 대조를 통하여, 세상에는 풍요로운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존재함이 드러나고 있다.
② [B]에서는 '어둠'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'너'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, '나'가 바라는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.
③ [C]에서는 '함박눈'을 멈추겠다는 '나'의 의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고통이나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.
④ [A]에서는 '너'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'슬픔' 또한 느끼게 하는 것의 의도는 [B]에서는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해온 '너'를 단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.
⑤ [B]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'너'의 모습이 드러나고, [C]에서는 '너'와 동행하며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'슬픔'을 끊어야 한다는 '슬픔의 힘'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.

25. ⓐ~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ⓐ: '존재의 테이블'의 외형과 특징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.
② ⓑ: '존재'의 자리를 만들고자 한 자신의 계획이 너무 성급했음을 한탄하고 있다.
③ ⓒ: 지난날의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, '존재의 테이블'을 구하고자 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.
④ ⓓ: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'존재의 테이블'을 마련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'존재의 테이블'을 사용한 날이 적었다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.
⑤ ⓔ: '존재의 테이블'과 '거울'의 유사한 특징에 주목하여 '존재의 테이블'이 성찰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.

26. ㉠, ㉡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㉠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, ㉡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도래하지 못한 데에 대한 슬픔을 드러낸다.
② ㉠은 결연한 의지로 직면한 위기를 이겨내고, ㉡은 자신이 사모하는 이에 대한 순애보적인 사랑을 드러낸다.
③ ㉠은 다른 존재가 나아가는 데에 기반이 되어주고, ㉡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만연한 세상을 기다림을 드러낸다.
④ ㉠과 ㉡은 외면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드러낸다.
⑤ ㉠은 다른 존재의 중심을 잡아주려 하고, ㉡은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.

27. <보기>를 참고하여 (나), (다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(나)와 (다)에는 주체가 세태를 관망하거나 사유하며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. 이는 세태를 관망하며 세상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는 방식이나, 아니면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.

① (나)는 '너'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소외받은 약자를 돌보지 않는 소시민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 주목하고, 이를 통하여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 비판함을 드러내는군.
② (다)는 '존재의 테이블'에 대해 주목하여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잊고 살아간 '자신'에 대하여 반성하고, 이를 통하여 존재의 자리를 갖고자 함을 드러내는군.
③ (다)는 '존재의 테이블'에 대한 사유를 통하여 삶이 힘들 때마다 더 낮은 자세와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함을 드러내는군.
④ (나)는 '기쁨'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소시민적인 자아에서 벗어난 인간이 타인을 도울 때에 느끼는 보람에 대한 인식을, (다)는 '존재의 테이블'을 닦는 행위에 대해 주목하여 '존재의 테이블'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군.
⑤ (나)는 '너의 눈물'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타인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회의 미성숙함에 대한 비판을, (다)는 '존재의 테이블'과 '바슐라르'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'존재의 테이블'은 외면적 가치와는 요원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.